

상생공영 남북 산림 협력

The inter-korean cooperation for afforestation in the North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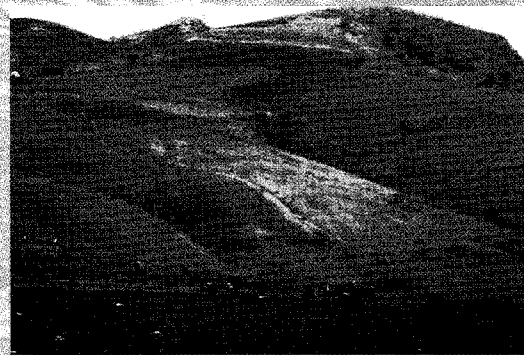


홍성옥 |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회담3과

북한의 산림에 대해 관심을 갖기 전,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북한에 대한 상식은 국토의 대부분이 산림으로 이루어진, 침엽수로 우거진 산림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한 장의 사진은 나의 상식을 깨트리며 적잖은 충격을 가져다주었다. 나무 한그루 남지 않은, 흙을 쏟아놓은 듯한 북한 민둥산의 모습, 그것이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었다.

자연은 그곳에 거주하는 생명과 희로애락(喜怒哀樂)을 함께하는 듯 하다. 북한이 처해있는 만성적인 식량난과 에너지난, 빈곤의 일상이 북한의 자연에도 그대로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황폐화된 자연은

매년 되풀이되는 자연재해를 일으키며 주민의 빈곤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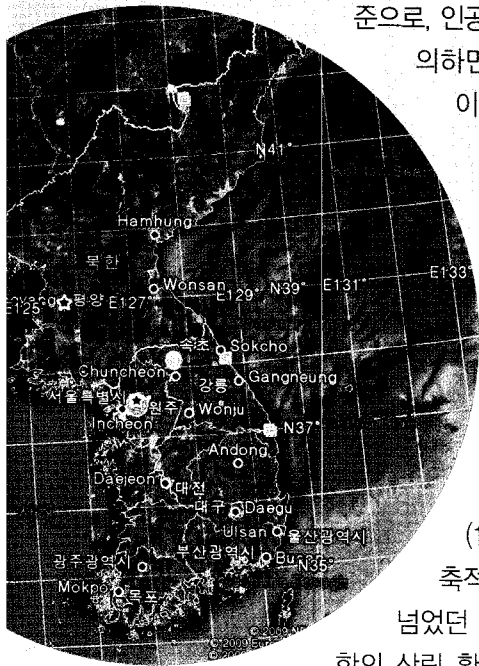


(다락밭 개간으로 훼손된 함경북도 무산의 산지(1999))

북한의 산림 황폐화

북한의 산림 황폐화는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인공위성 사진 분석에 의하면, 황폐지의 면적

이 163ha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는 서울시의 27배에 달하는 면적에 해당한다. 또한 현재 북한의 평균 임목축적은 남한의 절반 수준으로, 분단 전(1945년) 평균임목축적이 남한의 10배가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북한의 산림 황폐화 진행이 매우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사안이며, 이미 관리 통제 능력을 상실한 북한 당국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말해주고 있다.

열쇠는 남북협력

남한은 일제강점기와 전쟁으로 황폐화된 국토를 단기간에 복구한 경험이 있으며, 세계적인 산림녹화 성공국으로 평가받고 있다. 북한의 산림 황폐화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되기 전에, 남한의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남북 협력을 통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급한 시점이다.

2000년 이후 북한 당국 및 국제기구, 국내 민간 단체를 중심으로 북한 산림복구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지만, 북한 당국의 소극적인 태도, 민간단체의 자금 문제 및 조직적인 한계 등으로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림 황폐화의 문제는 식량·에너지 등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으므로, 다각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산림 복구는 단순히 묘목을 제공하거나 나무를 심는 차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대상이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전제된 CDM(청정개발체제 : Clean Development Mechanism)등의 일정한 체제하에서 진행되어야 효과적이다.

남한(2003, 산림청), 북한(2004, UNDP)

남한	구분	북한
993만ha	국토면적	1,227만ha
639만ha	산림면적	890만ha
64%	산림율	73%
5억1천만m ³	임목축적	4억9천만m ³
79.2m ³ /ha	평균축적	40.6m ³ /ha
9m ³ /ha	1945	134m ³ /ha

< 남북한 산림현황 비교 >

북한의 산림 황폐화는 70년대 이후 가속화되었으며, 이는 식량난에 따른 다락밭 개간과 에너지난으로 인한 과도한 벌목, 외화획득을 위한 과잉 벌채가 주된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북한 산림복구의 문제가 단지 '산에 나무를 심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보다 근본적이고 총체

상생공영 남북산림 협력

남북한 산림협력은 건강한 한반도를 후세에 물려주어야 할 남과 북 공동의 민족적 과제임은 물론, 남과 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협력분야이다. 북은 황폐지 조림, 경제난 극복의 계기가 되고, 남은 CDM 사업을 통한 탄소배출권 획득 및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통일 대비 통일비용 절감 등 상호 Win-Win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현 정부는 '녹색성장(green growth)'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명시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다. 녹색 한반도 건설은 녹색성장시대에 남과 북이 '상생 공영'할 수 있는 협력사업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북한의 건강한 주민과 건강한 산림이 담긴 사진을 다시 볼 수 있기를 기대하며, 북한의 민둥산을 수목이 우거진 산림으로 푸르게 색칠하는데 힘을 합쳐 나갈 것을 다짐해본다. 🌲

